

# 교실 수업 공개와 참관을 통한 두 국어 교사의 변화와 성장의 체험\*

엄훈\*\*

## 〈차 례〉

1. 프롤로그
2. 이야기의 바깥쪽: 연구자와 연구 주제
3. 이야기의 안쪽: 교실을 매개로 한 두 교사의 만남, 그리고 변화
4. 방법론적 반성

## 1. 프롤로그

지금부터<sup>1)</sup> 필자는 지난 3주 동안 K 중학교에서 있었던 두 국어 교사의 '흥미롭고도 특별한' 수업 공개와 참관 체험을 이야기를 짜 나가는 방식으로 생생하게 보고하려 한다. 필자는 이 연구 보고에서 참여자들의 체험과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내러티브라는 새로운 형식을 도입하려 한다. 이 방법은 비유컨대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카메라가 포착한 대상만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찍는 카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30-B00029)

\*\* 관악중학교 교사

1) 이 글을 쓴 시기는 2003년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이다.

메라와 카메라를 조작하는 다큐멘터리 작가까지 보여주는 방식과 유사하다. 어쩌면 이런 비유는 내러티브의 본질을 전달하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러티브 연구에서 연구자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내러티브 연구는 오히려 참여자들의 삶의 특정한 국면을 있는 그대로 조명하여 무대 위의 연극처럼 보여주는 방법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 필자는 지난 3주간의 수업 공개와 참관 체험을 연구 보고서에 담아내기 위해 지난 체험을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돌이켜보고 있다. 필자는 어떤 체험의 주체가 자신의 체험에 대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야기하는가에 따라 이야기의 관점과 목소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실감한다. 그러면서 지금 하려는 이야기를 더욱 실감나게 입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심리적인 거리에 따른 목소리의 차이를 그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그래서 이 글에서 스스로를 지칭할 때 지금 사용하는 '필자'라는 지칭어 외에도 현장 텍스트를 만들 때 사용한 '연구자'라는 지칭어를 함께 사용하기로 한다. 이 때 '필자'는 연구 텍스트를 구성할 때 현장에서의 경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심리적 거리를 두고 있는 연구 주체를 가리키며, '연구자'는 교실 관찰이 이루어질 때 현장에 몰입해 있는 연구 주체를 가리킨다.

## 2. 이야기의 바깥쪽: 연구자와 연구 주체

필자는 먼저 연구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 연구의 주제에 접근하게 되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K 중학교에 초임 발령을 받았으며 근무 경력은 4년이지만 박사 학위 논문 제출을 위해 2년간 휴직을 하였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실 교육 경력은 2

년이다. 연구자는 현재 중등 국어과 교실 평가 연구라는 학술진흥재단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자는 지난 몇 개월간 자신의 국어 교실에서 학생들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교실 평가 기법을 개발하여 적용해 보고 그 과정과 결과와 함께 자신의 실천에 관한 성찰을 일지에 기록하고 있었다. 이 일은 힘들고 지루한 과정이었으며 스스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도 받을 수 없었다. 연구 일정이 반 이상 흘러간 다음 연구자는 '국어 교사가 자신의 교실에서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자료를 스스로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에 기반하여 피드백을 하는 방법을 개발한다'는 애초의 계획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의 역동적인 과정을 제대로 담아내기에는 지나치게 협소하고 제한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제대로 된 교실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업을 하는 교사 자신의 눈과 학생의 눈뿐 아니라 제3의 눈이 필요함을 절감하였다. 2003년 9월경 연구자가 동료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실 평가를 구상하게 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이 때 연구자가 구상한 것이 협동 학습 구조로 진행되는 중학교 국어 수업에 대한 교실 평가 연구였다. 연구자는 협동 학습의 원리와 구조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것을 적용해 보기 위해 워크숍과 연수에도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협동 학습 구조가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동 학습과 교실 평가를 결합한 연구가 시의적절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협동학습 연구회의 중심 인물 중의 한 사람인 K 교사와의 공동 연구를 모색하였다. 연구자는 공동 연구를 통해 현장 교사들의 연구 공동체 같은 것을 모색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지니고 있었다.

## 가. 난관

연구자가 구상한 연구의 내용이나 성격으로 보아 K 교사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했다. K 교사를 서너 차례 만난 바 있던 연구자는 K 교사라면 상황이 어렵더라도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자가 처음으로 이메일을 통해 공동 연구를 제안했을 때 K 교사는 2학기의 바쁜 일정을 들어 난색을 표시했다. 3학년 진학 지도, 내신 성적 처리, 시범학교 발표 준비 등 빡빡한 일정 때문에 9월과 10월에는 외부 일정을 일체 잡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외부인의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학교측의 입장도 문제였다. 연구의 범위와 일정을 수정하여 새로운 제안을 하였지만 긍정적인 대답을 듣지는 못했다. 10월 중순의 어느 화요일 저녁 연구자는 K 교사와의 공동 연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 연구자에게는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차분히 반성해 볼 여유가 없었다. 11월 중순에는 연구 과제의 중간 발표를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늦어도 10월 말에는 수업 참관이 시작되어야 했다. 부랴부랴 선후배의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협력 교사를 찾았다. 이 시점에서 협동 학습 수업을 참관하고 평가하리라던 당초의 계획은 포기하였다. 수업의 성격에 관계 없이 당장 국어 수업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얻는 것이 급선무였다. 모 대학 부설 여중에 근무하는 Y 교사와 접촉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Y 교사의 소개로 S 중학교에 근무하는 M 교사를 찾았다. M 선생님과의 대화 과정에서 연구자는 우리나라에서 교사가 타인에게 자신의 수업을 공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며 왜 어려운지 어렵פות이나마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교사가 수업 공개를 꺼리는 현상의 밑바탕에는 간단히 설명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문화적 배경<sup>2)</sup>이

2) 수업 공개를 꺼리게 되는 문화적 배경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연구해 볼 만한 주제이다. 연구자는 M 교사와의 면담에서 표준적인 국어 수업에 대한 공공의 기대와 자신의 실제 수업 사이의 지나친 격차가 수업 공개를 꺼리게 만드는 한 원인임을 느꼈다. 그런데 '표준적인 수업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형성되며 그것이 교사들

있었던 것이다. 이 시점에서 연구자는 교실 평가 연구 작업의 초기에 수업 공개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았다. 연구 과제가 시작되던 무렵 연구자는 공동 연구자인 S 교수가 수업 참관 연구를 제안했을 때 연구의 성격상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며 그 제안을 거절했었다. 연구자 스스로도 수업 공개를 가로막는 문화적 장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다.

실망감을 안고 돌아오는 길에 연구자의 마음 속에 문득 떠오르는 Y 교사의 한 마디가 있었다. '선생님이 계신 학교에서 하는 게 가장 쉬울 텐데요.' 순간 연구자는 깨닫는 바가 있었다. '내가 너무 등잔 밑이 어둡구나. 박혜정<sup>3)</sup> 선생님이 계신데...'

## 나. 등잔 밑이 어둡다

M 교사와의 만남이 있기 전인 9월 말 연구자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박혜정 선생님이 자신의 수업에 연구자를 초대할 적이 있었다.

나는 연극 수업을 보러 오라고 나를 초대하는 박혜정 선생님을 보고 속으로 무척 놀랐다. 아니, 연구 수업도 아닌데 자신의 수업에 초대를 다 하다니. 더욱 놀란 건 그 다음이다. 내가 수업이 겹쳐서 가기가 곤란하다고 하자 '그럼 원래 보여주려고 한 수업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비는 시간에 한번 보러 오세요.' 이라신다.(연구 일지 11\_9)

연구자는 9월 26일(금) 3교시 2학년 10반의 수업을 참관하였다. 참관이 끝난 후 연구자는 비는 시간에 그 수업에서 본 것을 기록해 두었

---

에게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가 하는 점은 깊이 있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문화적 현상이다.

- 3) '박혜정'은 참여 교사의 가명이다. 필자는 원고를 교정하는 최종 단계에서 참여 교사 본인과 협의하에 가명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이렇게 관찰지를 쓴 것은 박혜정 선생님께 피드백을 해 드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지만 박혜정 선생님의 수업에 대하여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날 연구자는 어떤 질문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중간고사 준비로 바쁜 상황에서 중간고사 이후에 차분히 생각해 보기로 하고 관찰지를 보내는 것을 미루어 두었었다. 그러다가 M 교사와의 만남이 있기 하루 전인 10월 16일 새벽, 관찰지와 함께 몇 가지 질문을 이메일로 보내드렸다.

그날 교직원 식당에서 박혜정 선생님은 메일을 보았다고 하면서 식사하는 것도 잊고 생각나는 대로 연구자의 질문에 답해 주었다. 아이들의 반응이 궁금하다고 하자 학생들의 자기 평가지와 발표 장면 녹화 테이프를 보여 주겠다고 하신다. 연구자는 그날의 대화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적어 두었었다. “내 관심사에 대하여 굉장히 열성적으로 신바람나게 소개를 해 주신다.”

M 교사와의 만남이 있던 날 밤 연구자는 박혜정 선생님과 대화의 자연스럽게 연구 프로젝트로 연결시킬 공리를 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왜 가까이에서 열려 있는 큰길을 몰랐을까? 나는 왜 엉뚱한 데서 길을 찾았을까?’하는 생각을 하였다.

## 다. 연구자는 왜 등잔 밑이 어두웠는가?

앞서 밝혔듯이 연구자가 처음 교실 관찰을 구상하였을 때 연구의 초점은 협동 학습 구조로 이루어지는 국어 수업에 있었다. 그러므로 협동 학습과는 별 관련이 없는 박혜정 선생님의 수업이 고려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그후 K 교사와의 협력이 무산되고 다른 협력 교사를 수소문하여 찾아다닐 때도 연구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학교 후배 교사들만을 손으로 꼽아보고 있었다. 연구자는 박혜정 선생님과 협력 관계가 이루어진 후에도 한참 동안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깨달

지 못했다. 연구자는 다만 자신이 지금까지 박혜정 선생님을 '오해'하고 있었다고만 생각했다. 박혜정 선생님에 대한 연구자의 오해란 박혜정 선생님이 섬세하지 못하고 거칠다는 인상이었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별로 배울 것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나는 박혜정 선생님이 다른 교사를 대할 때 섬세하지 못하고 거칠다고 생각했다. 언젠가 박혜정 선생님은 나에게 자신의 수업 방식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엄 선생님은 아마 이런 수업 하기 힘들 거예요.'…… 나는 박혜정 선생님의 지나친 자신감 표출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꼈다. 그리고는 별로 배울 게 없는 사람이라고 마음 속으로 치부하였다.(연구일지 11\_9: 2003년 3월의 어느날을 회상하며)

그러나 연구가 마무리되어갈 무렵 그 동안의 체험을 되돌아보며 연구 일지를 쓰던 어느 날 연구자는 '등잔 밑이 어두웠던 것'이 연구의 성격이나 박혜정 선생님에 대한 단순한 오해 때문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거기에는 그때까지는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벽'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나이와 권위의 벽이었다. 박혜정 선생님은 연구자보다 선배이며 많은 현장 교육 경험이 있었다. 연구자는 실제 교육 경력은 이제 겨우 만 2년이었지만 2002년에 국어교육 전공으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연구자는 국어교육에 관한 한 자신 만큼 아는 사람이 이 학교에 별로 없을 것이란 확인되지 않은 자만심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가볍게 받아들였음직한 말 한마디가 연구자가 쌓아올린 권위주의의에 부딪쳐 오해라는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어쩌면 나는 오해를 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듯도 하다. 나는 스스로를 국어교육의 전문가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실제 수업에서는 교전을 면치 못하였다. 실제 교육 경력도 겨우 일년 남짓한 상황. 웬만한 초임 교사라만 경력 20년의 교사가 자신 있게 처방을 내리면 그 말을 금과옥조처럼 간직하려면 나는 그러한

말을 뼈뚫히게 받아들였다. 국어교육의 교육과정이나 국어교육의 목표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있어서도 나는 스스로 권위자였 하였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일면 타당하지만 그러한 인식은 우물안 개구리식의 사고방식일 수 있다. 나는 스스로 쌓아올린 권위의 벽 속에 갇혀 있었다.(연구일지 11\_9)

## 라. 전환점

박혜정 선생님과과의 협력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박혜정 선생님은 언제나 연구자의 질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답해 주셨고 자신의 수업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으면 바로바로 보내주셨다. 또한 10월 21일 있었던 예비 관찰을 시작으로 독서 수업과 국어 5 단원 수업에 대한 참관이 이루어졌다. 문제는 연구 주제였다. 수업 참관이 시작된 시점에서 연구자는 연구 주제를 명료하게 진술할 수 없었다. 연구자는 10월 21일의 참관이 이루어지기 직전 박혜정 선생님께 보낸 이메일에서 연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교실 평가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협력 교사 구하기의 실패 경험을 이야기한 뒤) 이러한 시행 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서로서로 수업을 공개하는 풍토를 만들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선생님의 수업을 참관해 보고 싶다고 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수업을 관찰해 보고 싶은 까닭은 이것만은 아닙니다. 선생님의 수업은 국어 교사들이 보고 배울 만한 요소들을 많이 지니고 있는 듯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수업을 뜻깊게 생각하고 있고 게다가 학습 효과까지도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니까요. 4) 그런데 선생님도 인정하셨다시피 '왜 그런가'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요.

- 
- 4) 이러한 사실은 연극 수업 후 이루어진 학생들의 자기 평가서와 객관적인 성적에서 확인되었다. 아이들은 대체로 박혜정 선생님의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에 대해 '힘들었지만 뜻 깊고 재미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박혜정 선생님이 가르치는 반들은 다른 선생님이 가르치는 반에 비해 국어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교실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학습을 하며, 또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밝혀진다면 '이 수업은 실제로 이러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겠지요.

교실 평가는 실제로 수업을 하는 교사에게 '학생들이 교실에서 실제로 이렇게 학습하는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피드백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그러니 교실 평가의 주체는 당연히 교실에서 실제로 수업을 하는 교사, 또는 교실을 참관하는 동료 교사가 되겠지요. 교실 평가의 관점에서 볼 때 제3자가 수업을 참관하는 것은 교실 수업을 직접 담당하는 교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결과를 피드백해 줄 수 있기에 의미가 있습니다.(이메일 연 10\_20)

이 메일에서 연구자가 언급하고 있는 참관의 목적은 첫째, 수업을 공개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 것, 둘째, 교사의 수업이 왜 뜻 깊고 효과적인가를 밝혀내기 위하여 실제 교실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학습을 하며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하는 것, 셋째,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하는가에 대하여 그때그때 교사에게 피드백을 해 주는 것이다.

연구자는 박혜정 선생님에게 그때 그때 관찰 결과를 성실하게 피드백하였다. 수업 참관을 한 후 수업 관찰지를 그날그날 컴퓨터로 정리한 다음 이튿날 아침까지 보내드렸으며 수업 전사본도 능력이 닿는 한 신속히 작성하여 보내드렸다. 또한 박혜정 선생님과 대화 있었던 날은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프린트해 드렸다. 이로써 세 번째 목적은 소박하게나마 달성하고 있었던 셈이었다.

하지만 수업 참관이 중반에 이른 시점에서도 연구자는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관찰할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없었다. 교사의 화법에 초점을 맞출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양상에 초점을 맞출지, 아니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습에 몰두하는 시간을 측정해 볼지 결정할 수 없었다.

10월 27일 연구자는 수업 참관에 들어가면서 박혜정 선생님께 무엇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느냐고 질문하였다. 그날 박혜정 선생님은 '교사

와 학생이 어떻게 함께 호흡하는지 혹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지를 자세히 봐 달라'고 주문하였다. "저는 수업의 성공 여부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이메일 박 10\_27 00:37) 그러나 연구자는 박혜정 선생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관찰해야 할지 막막해 하고 있었다. 이러한 혼란은 협력 교사인 박혜정 선생님도 겪고 있었다. 이는 어쩌면 연구자가 겪고 있는 혼란스러움으로부터 전염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00'00-(교사)..은 주겠습니다 나는 이 어 아직은 어느 정도  
00'05-효과가 있을지 이 방법이 과연 좋은 방법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  
00'10-(참관자) 저도 이게 새로 해 보는 거니까요 하는 과정에서 상의를 드릴게요  
(교사) 그래요 (수업 전사 10\_28)

하지만 이러한 혼란의 이면에서 연구의 전환점이 마련되고 있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10월 25일 토요일, 청주의 모 대학에서 이루어진 교실 평가 과제 회의였다. 연구자는 그 자리에서 질적 연구 방법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하게 되었다. 특히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살려내는 내러티브 탐구 기법은 매우 흥미로웠다. 다음날인 일요일 오후, 연구자는 "초등 예비 교사의 실습 체험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이혁규·심영택·이경화, 2003)라는 논문을 읽었다. 이 논문을 읽으면서 연구자는 내러티브 방법을 이용하여 수업 공개를 통해 교사들이 겪는 변화를 기술해 보면 좋겠다는 구상을 하게 되었다.

이까 읽어본 내러티브 연구를 보면 연구자의 변화 과정을 생생하게 살려 놓은 것이 참 좋아 보였지. 그렇다면 이 연구에서도 연구자의 생각이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내 스스로에 대하여 성찰한 기록물을 남겨야 한다. 지금 쓰고 있는 것과 같은 연구 일지를 매일 써야겠다. .... 박혜정 선생님이 학생들의 반응이나 관찰 결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변화를 겪는지도 기술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런 것도 직접 인터뷰를 해 볼까? (연구일지 10\_26)

연구의 전환점이 될 주제 의식이 처음으로 명확하게 제시된 것은 10월 27일 새벽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통해서였다. 이날 연구자가 보낸 이메일에 대하여 박혜정 선생님은 즉각적인 답신을 보내면서 연구의 목적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하였다.

질문 1.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질문 2. 나를(동료 교사 수업 참관) 통해 얻으려 하는 것은 무엇인지?

연구자는 질문 2에 답하면서(질문 1에 대한 답은 뒤에 언급한다) 다음과 같이 이번 연구의 성격과 목표를 피력하였다.

선생님의 수업을 참관함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참관을 통해서 수업을 하는 교사나 참관을 하는 교사가 바람직한 교사로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직접적인 결과물은 교실 수업 현장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체험이 생생하게 담긴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에 수업을 한 교사나 참관을 한 동료 교사의 체험과 성찰이 담김으로서 그 보고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 현장에서의 전문성 향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되겠지요. 그러려면 그 연구 보고서는 당연히 독자 친화적으로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이메일 연 10\_27 01:57)

### 3. 이야기의 안팎: 교실을 매개로 한 두 교사의 만남, 그리고 변화

#### 가. 교실 수업 스케치

수업 참관이 허락된 후 연구자가 몇 반 수업을 들어가면 좋겠느냐고 묻자 박혜정 선생님은 2학년 10반이 좋겠다고 대답했다. 답임을 맡고 있는 11반은 선생님이나 아이들이나 서로 너무 가까워 때로 수업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부적절하고 나머지 반들 중에서는 10반이 가장 차분하고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도 좋은 편이라고 하였다. 10반은 지난 9월 연구자가 연극 수업을 참관한 반이기도 하다.

서로 다른 삶의 궤적을 그려온 두 국어 교사가 수업 공개와 참관을 통해 만나고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줄 이 '이야기의 안팎'은 만남의 매개가 된 2학년 10반의 교실을 스케치하는 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1) 2학년 10반 교실

2학년 10반 교실의 뒷문으로 들어서면 정면 중앙에 칠판과 교탁이 보인다. 교탁의 왼쪽 창가 쪽에는 원래 용도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컴퓨터 책상이 놓여 있고 그 바로 위 천장에는 TV 모니터가 매달려 있다. 교실의 뒤편에는 학생들의 사물함이 있고 사물함의 옆 복도쪽에는 청소 도구함이, 창가쪽에는 온풍기가 놓여있다. 10반의 학생은 29명으로 복도쪽 옆의 끝자리는 비어 있다.

교사가 들어서면 아이들은 5열 6행 등간격으로 배열된 책상에 황급히 자리잡는다. 이러한 좌석 배열은 일제식 수업을 할 때나 시험을 치를 때 가장 적합한 배치 방식이다. K 중학교는 일요일이면 종종 각종 시험 장소로 활용되는데 이 때 5열 6행의 좌석 배치가 요구된다. 대부분의 담임 선생님들은 가장 무난하고 이동이 적은 5열 6행의 좌석 배치를 고수한다. 연구자는 2열과 3열의 맨 뒤쪽 책상들과 사물함 사이의 좁은 공간에 자리를 잡는다.

참관을 하면서 연구자는 좌석의 배열에 따라 창기쪽 열의 첫 번째 좌석에 앉은 학생은 1-1, 두 번째 좌석에 앉은 학생은 1-2 식으로 지칭하는 것이 편리함을 깨닫는다. 박혜정 선생님은 무대가 필요한 연극 수업이나 모둠별로 참여하는 독서 퀴즈 대회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이 좌석 배치를 그대로 활용한다.

연구자는 2학년 10반 학생 중 상당수를 이미 알고 있다. 연구자는 작년엔 1학년 4개 반에서 국어를 가르쳤는데 그 때 가르친 아이들이 10여 명 눈에 띈다. 박혜정 선생님이 들어서서 앉아 있지 않은 학생들 몇 명을 혼내고 “자, 반장!” 하고 신호를 보내면 반장이 “차려, 선생님께 경례!”하고 인사를 하고 수업이 시작된다. 박혜정 선생님이 참관자와 참관 목적을 소개하자 몇몇 아이들이 뒤돌아보며 인사를 한다. 같은 학교 교사가 참관을 해서인지 아이들은 참관자로부터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듯하다<sup>5)</sup>.

수업의 도입부인 처음 5분간은 대체로 수업 분위기를 잡고 지금까지의 활동을 점검하고 그 시간에 할 활동을 안내하는 시간이다. 이 때 수업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을 지적하고 혼내며 간혹 전체 학생들에게 “모두 눈 감아.” 하고 지시함으로써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가라앉힌다. 박혜정 선생님은 시종 약간 높은 톤의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목소리

---

5) 연구자는 수업을 참관하는 동안 아이들이 참관자로부터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박혜정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였다고 연구 텍스트 검토 단계에서 말하였다. 그런데 참관이 끝난 후 10반 아이들이 약간 소란스러워졌으며 박혜정 선생님이 그 까닭을 묻자 참관 교사가 없어서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아이들은 관찰자의 느낌과는 달리 관찰자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들은 또한 참관 교사가 왜 인사도 없이 사라졌느냐고 물었다고 했다. 그때까지 박혜정 선생님과 연구자 모두 이것이 미묘한 연구 윤리 문제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같은 K 중학교 교사이기에 참관이 끝났다고 현장에서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아이들에게 참관이 끝난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연구자의 잘못된 판단이었음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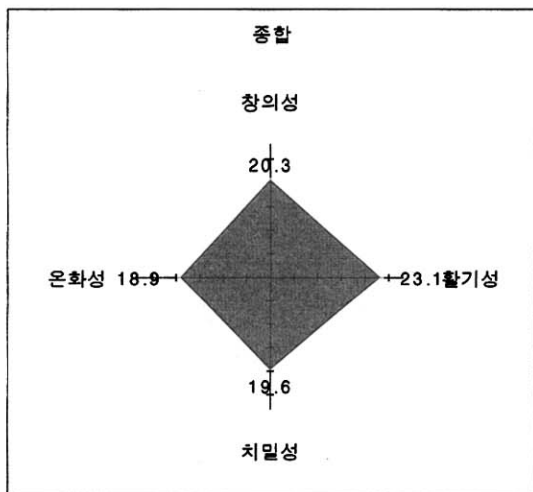
로 수업을 주도해 간다.

서너 차례 수업 관찰이 이루어지자 연구자의 눈에 박혜정 선생님의 수업의 특징이 뚜렷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엄격한 교실 통제, 활발한 언어적 상호작용, 빠른 템포, 적재적소에서 학습의 포인트를 포착하여 다루는 능력 등이 눈에 띈다.'(연구일지 10\_28) 교실 안에서 선생님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학생은 하나도 없다. 그러자니 선생님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다. 수업이 끝난 후 피드백해 주어야 할 것들도 산더미처럼 쌓인다.

박혜정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학습은 매우 밀도 있게 이루어진다. 처음 잡아 놓은 수업 계획이 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재량 시간에 이루어지는 독서 수업의 경우 1년 36차시가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 36차시 시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국어 시간에도 자기 소개하기, 장면화 그리기, 연극 수업, 소설 쓰기 같은 프로그램화된 활동이 전개되기 때문에 여유롭게 흘러보낼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런지 보통 한 시간의 수업에서 전개 단계의 활동이 종이 울리기 직전까지 이루어진다. 정리는 종이 울리기 직전이나 직후에 약 1분 가량 이루어진다. 이 때 한 시간의 수업 활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다음 시간의 활동이 예고된다.

연구자는 수업 참관이 끝난 후 박혜정 선생님이 추천한 학생들과 면담을 하였다. 면담 학생을 추천해 달라고 한 까닭은 학업 성취도의 면에서 각각 상, 중, 하의 그룹에 속하는 학생들을 다양하게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때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박혜정 선생님의 수업 분위기,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에 관한 느낌, 교사와의 상호작용의 정도,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국어 공부에 대한 생각, 박혜정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 등을 물었다. 수업 분위기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창의성, 온화성, 치밀성, 활기성의 네 가지 범주 모두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그림 참조)<sup>6)</sup>. 학생들은 박혜정 선생님의 수업에서 학습에 특별한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으며 배운 것이 앞으로의 공부나 일상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는 연극 수업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소설 쓰기를 토대로 이루어진 '나의 사랑' 발표하기가 꼽혔다. 학생들은 대체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수업 시간에 다양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사와의 상호작용의 면에서 상위 그룹 학생들과 하위 그룹 학생들은 모두 충분한 피드백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중간 그룹에 속한 한 학생이 자기처럼 조용하고 특징 없는 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림〉 2학년 10반 수업 분위기 검사 결과

- 6) 수업 분위기를 평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검사 방법은 「구조화된 관찰 체크리스트를 사용한 관찰」(KICE 교수학습자료센터)에 인용된 〈변영계(1997), 『수업 장학: 수업 기술의 개선 방법』, 학지사, pp.215-235)의 것을 이용하였다. 그림에서 수업 분위기의 네 가지 영역이 좌표 평면에 표시되는데 각 영역별 점수는 최하 0점, 최고 28점으로 나타난다.

## (2) 수업의 맥락 이해하기

### ◇ 첫인상

연구자가 박혜정 선생님의 수업을 처음 보았을 때 받은 느낌은 '놀라움'이었다. 연극 수업을 보고 난 후 연구자는 참관 소감에서 이렇게 썼다.

학생들은 거의 한달 가까이 연극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후에 이것은 연구자가 잘못 들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사실 연극 수업은 총 8차시로 구성되었는데 마지막 두 시간의 공연하기 전에 조별로 연습하는 시간을 두어 그 기간이 대략 한달 가량 소요된 것이었다.) 전체 학생들이 모두 참가하는 연극 수업을 한다는 것은 나와 같은 신참 교사에게는 놀라운 일일 뿐이다. 우선 교과서에 제시된 교과진도와는 상관없이 한달 가까이 연극 수업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추진력이 놀랍다. ... 나는 연극을 준비하고 발표를 하고 관람을 하는 시끄럽고 어수선한 교실의 분위기가 한달 가까이 지속되는 것을 참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30명의 아이들을 통제한다는 것도 나에게서는 불가능해 보인다.(연극 수업 참관 소감 9.26)

이러한 놀라움과 더불어 연구자는 박혜정 선생님의 연극 수업에 대하여 두 가지의 문제 의식을 지니게 되었다. 첫째, 연극 수업을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 교육적 가치는 국어교육의 고유한 가치로 인정될 수 있는가? 둘째, 연극 수업이 국어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교육과정 속에서 언제,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의문의 답을 찾기 위하여 연구자는 박혜정 선생님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보냈다.

- 왜 국어 교실에 연극 수업을 도입하였는가?
- 연극 수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 연극 수업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했는가?
- 그 목표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 연극 수업의 근거를 교육과정상에서 찾을 수 있는가?
-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인가?
- 없다면 국가가 고시한 필수적인 교육과정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낳지는 않는가?

연구자의 이런 의문에 답하여 박혜정 선생님은 10월 16일의 만남에서 대략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였다.

연극 수업을 시작한지는 7년 정도.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하였다가 최근에 와서 작품 전체를 창작하고 공연하는 데 이르게 되었고, ... 수업은 역할 정하기, 대본 만들기, 연습하기, 공연하기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연극 수업은 아이들이 직접 무언가(언어 작품)를 협력을 통해 만들어보고 보여주는 활동을 해 보게 하려는 의도로 도입하게 되었다<sup>7)</sup>. ... 그 과정에서 수업에 전혀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아이들이 이런 것 왜 하느냐고 투덜거리는 경우도 있는데 국어 수업을 바꾸고 싶다는 말을 여러 번 해 왔고 아이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마련하였다. 그래서 활동 중심의 수업에 대하여 아이들이 그 의미를 인정한다. ... 연극 발표에 대하여 학생들은 각자 반성과 평가를 하게 된다. ... 이때 발표 장면을 녹화한 것을 같이 보며 평가한다. ... 연극 수업을 위해서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교사가 학생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1학기 때 계속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적용시켰다. 적어도 국어 수업에서는 과제를 안 낸다는 것은 꿈도 못 꾸게 철저히 관리를 한다. ... 교육과정의 문제로 교육과정에 분명 연극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상에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sup>8)</sup>. (박혜정 선생님 면담 10\_16)

- 
- 7) 연구 텍스트 집필 단계에서 박혜정 선생님은 연극 수업의 목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미흡하게 진술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연극 수업의 목적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재미있고 다양한 수업 형태를 도입한다. 둘째, 상상력과 창의성, 자기 표현력을 신장한다. 셋째, 협동심을 기르고 우정을 쌓고, 추억을 만들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인성 교육을 한다.
  - 8) 교육과정에 대한 박혜정 선생님의 언급에는 약간의 착오가 있는 듯하다. 문학 창작

연구자는 박혜정 선생님이 보여준 학생들의 연극 수업 평가 및 소감에서 선생님이 의도한 학습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대체로 준비 과정에서 수업에 대해 의심을 품는다. “맨 처음 이런 거 하면 뭐하나 하면서 한숨만 났었다.” 그러나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매우 뿌듯해 하고 다음에도 하고 싶어한다. “즐거웠다. 다음에도 하고 싶다. 서로 대본 만들고 연극 연습하고 연극하면서 서로 도와가며 해 나가며 협동력을 기를 수 있었다. 혼자만 잘 하면 해낼 수 없었을 텐데 우리 조 아이들이 잘 해줘서 잘 끝냈던 거 같다.”(어느 학생의 연극 수업 평가 및 소감에서)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연구자는 앞의 면담에서 박혜정 선생님께서로부터 매우 인상적인 말을 들었다.

“저는 학생들에게 ‘국어 수업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같이 국어 수업을 바꾸어보자’라는 말을 자주 해요. 학생들도 제 말에 호응을 하구요.”

학생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의 일반적인 국어 수업과는 확연히 다른 국어 수업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연구자는 박 선생님의 그 비전, 즉 목표로 삼고 있는 바람직한 국어 수업의 상(像)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래서 이틀 뒤인 10월 18일, ‘박혜정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어 수업’에 대하여 물었다.

#### ◇ 이상적인 국어 수업

---

은 7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새롭게 도입되었는데 그 일환으로 8학년에 ‘여러 갈래의 글을 쓴다.’는 내용 항목이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갈래의 글이란 시, 소설, 수필, 희곡 등의 문학 작품을 가리킨다. 현행 교육과정에는 희곡의 창작이 언급되어 있지만 그것을 무대에 올리는 연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저는 국어 시간에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즉 사고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어떤 현상들의 본질까지 파고들어갈 수 있지요. 생각하는 힘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병폐를 극복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궁극적인 힘이라고 생각해요.”

박혜정 선생님은 생각하는 힘은 크게 사고력, 상상력, 창조력으로 구성된다고 말한다. 생각하는 힘은 감각과 더불어 발달해야 한다고 보며<sup>9)</sup> 또한 그것은 문제를 끝까지 탐구하여 해결하는 과정에서 길러진다고 말한다. 이 말은 생각하는 힘을 제대로 길러주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책상 머리에만 붙들어두지 말고 실제 몸을 움직여 부딪치고 찾아보고 갈등을 겪고 설득하고 변화시킴으로써 문제 사태를 해결해 보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도중에 포기함이 없이 끝까지 문제 사태를 해결해 내어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박 선생님은 생각하는 힘과 더불어 인성 교육도 중시한다. 인성 교육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그때 구체적인 계기가 있을 때마다 실시한다고 한다.(박혜정 선생님 면담 10\_18)

박혜정 선생님의 이상적인 국어 수업에 대한 상은 '사고력 신장'이 국어교육의 핵심이라는 뚜렷한 국어교육관 또는 교육 철학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박혜정 선생님의 수업 방식은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 박혜정 선생님은 1984년에 첫 발령을 받아 국어를 가르치다가 전교조 사태로 해직이 된다. 그 후 1994년에 복직을 하게 되었는데 복직한 학교가 강남의 B 중학교였다고 한다. 해직이 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수업 방식인 강의식 수업을 해 왔는데 복직을 하면서 새로운 수업

9) '생각하는 힘은 감각과 더불어 발달해야 한다고 보며'라는 표현에 대하여 박혜정 선생님은 연구 텍스트 작성 단계에서 자신의 생각이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박혜정 선생님은 인간의 감정, 감각, 이성은 각각 독자적으로 발달할 수 있지만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며 인간이 대상에 대하여 판단을 할 때 이성만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런 의미에서 박혜정 선생님은 이성과 감각과 감성은 균형 있게 발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인용문은 박혜정 선생님의 그러한 생각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곡해될 위험이 있다. 이에 박혜정 선생님의 설명을 각주로 달아둔다.

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저항에 부딪치기도 하였다고 한다.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하다 보면 교과 진도는 언제 나가느냐는 항의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학생과 학부모 모두 좋아했다고 한다. 박혜정 선생님의 새로운 수업은 다음 학교인 N 중학교에서 활짝 꽃핀다. 박혜정 선생님은 독서 지도가 국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매우 적합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독서 교육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개발하게 된다. 단계별 독서 수업 프로그램, 작품 패러디하여 연극으로 만들기, 소설 읽고 장면화 만들기 등이 대표적인 활동이다.

이 시점에서 연구자는 박혜정 선생님이 '자신의 교육 철학에 따라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한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 ◇ 교사는 자신의 교육 철학에 따라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활동이 국어교육과정과 어떻게 결합되는지 궁금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박혜정 선생님의 '이상적인 국어 수업'이 현행 교육과정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국어 수업을 바꾸자'고 하는 박혜정 선생님의 주장과 실천은 현행 교육과정과 충돌되지 않을까?

박혜정 선생님은 국어 교과서의 단원을 중심으로 이러한 활동을 통합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다. 국어 교과서의 여러 단원을 살펴보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기에 적합한 단원을 찾는다.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단원은 주로 소설 단원과 희곡 단원이라고 한다.

의문은 계속된다.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한 이러한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하면 현행 교육과정에서 의도하는 학습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질까? 이와 관련하여 박혜정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매우 인상적인 말을 한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면 제가 가르친 반들이 항상 시험 점수가 좋게 나와요. 나 스스로도 그러한 결과가 놀랍고 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해요.”(박혜정 선생님 면담 10\_18)<sup>10)</sup>

교사가 자신의 교육 철학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일은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할까? 필자는 국가가 고시한 교육과정의 의도를 살리는 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일은 매우 바람직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어 교사가 뚜렷한 철학도 없이 수업에 임한다고 생각해 보라. 아마도 그 교사는 국가와 학생들에게 봉사한다는 숭고하지만 막연한 사명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내가 왜 신명을 바쳐 이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 까닭에 교육과정 이론에서도 교육과정을 계획된 교육과정과 실현된 교육과정으로 나누거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교실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다.

이 날 연구자는 박혜정 선생님께 이러한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부담으로 느껴지는지 여쭙어보았다.

“전혀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 하지만 쉴 틈이 거의 없어요.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일은 대부분 그날 그날 다 해결하지만, 지금 학교일뿐 아니라 다른 일에도 관여하고 있어서 주말에도 일거리를 싸 가지고 집으로 가요. 그래서 놀러 갈 틈이 없지요.”

박혜정 선생님은 학교일 말고도 현재 전교조 참실 분과에서 학교 도서관 살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교육부 지정 연구 과제를 수행 중이라고 한다. 이 과제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박혜정 선생

10) 사실 지난 1학기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결과를 보면 박혜정 선생님 반의 학생들이 성적이 뛰어나다. 이러한 추세는 2학기 중간고사에도 그대로 계속되었다.

님은 그 중 서울 분과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 테마는 '학교 도서관을 활용한 수업'이다.

면담을 마친 후 연구자는 '교육 개혁을 위한 박 선생님의 끊임없는 열정은 어디에서 솟아나오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다음 날인 10월 20일, 이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 교육적 열정의 두 개의 원천: 가르치는 기쁨과 개혁에 대한 열망

10월 20일 식당에서 박혜정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앞 자리에 앉아 있던 H 교사가 박혜정 선생님에게 어디서 그런 열정이 솟아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칭찬하신다. 박혜정 선생님은 "아마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일 거예요."라고 대답한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박혜정 선생님이 살아온 길로 이어진다.

"제가 졸업을 (H대) 하였을 때 사실 임용고시(당시의 순위고사를 말한다)에서 떨어져서 일 년간 잡지사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그 일 년간의 시간이 고통스럽게 짝이 없었어요. 너무 맞지 않아 몸살이 날 지경이었지요. 그런 경험을 한 다음 시험에 합격하고 교사가 되니까 정말 물을 만난 물고기격이 되었죠."

학교에 발령을 받아서는 교과서 때문에 무척 힘들었다고 한다. '친일파 일색의 문학 작품'이 실려 있는 교과서를 가지고 소신 있는 말을 하자니 학생들에게 오히려 불신감을 초래할 것 같았다. 그렇다고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가르치자니 너무나 답답했다. 그러다가 숨통을 트게 된 것이 교사 소모임. 그 교사 소모임이 나중에 전교조의 전신인 전국교사협의회로 발전한다.

박혜정 선생님은 이미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회 문제와 삶에 대해 근본주의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고2 이후로는 공부를 포기하고 몹시 방황을 했다. 당시에 박혜정 선생님은 수녀가 되려 하였다가

부모님의 결사반대로 포기하기도 했다. 대학에 와서도 그러한 방황과 고민은 계속되어 늘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박한 상황의 연속이었다. 당시 대학 사회를 뒤흔들었던 데모 열풍에도 아무 관심이 없었다. 결국 '사는 것'을 선택해 보기로 하고 마지막 희망을 어린 학생들에게 걸었다고 한다. 기성 세대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혜정 선생님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한다면 우리 사회도 바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요즘도 한 학년이 시작되는 첫 시간에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와 우리 국어 교실을 바꾸어보자고 이야기를 해요."

전교조 결성과 관련하여 해직이 된 후 94년에 복직할 때까지의 5년간은 정말 힘든 시기였다. 마치 늪 속에 빠져서 흐느적거리는 듯하였고. 그러다가 94년에 복직이 되어 첫 수업에 들어갔을 때는 감격에 겨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아마도 그러한 경험 때문에 교육에 대한 열정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박혜정 선생님이 국어 수업에서 중시하는 것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활동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 그 중에서 특히 읽기와 쓰기가 중요하다고 한다. 말하기와 듣기를 가지고서는 사물을 깊이 파고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미디어를 활용한 수업도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독서를 통해 깊이 있게 읽고 비판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는 활동을 통해서만 본질에 깊이 파고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그가 독서 수업에 중점을 두는 까닭이다.

"앞으로 학교에서 '한 권 읽기 운동'을 펼쳐볼 생각이예요. 미국의 어느 도시(시애틀)에서 이루어진 운동인데, 모든 시민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6개월) 모두 한 권의 책을 읽고 비판하고 토론하고 반박하는 그런 운동이지요. 그런 운동을 우선 제가 들어가는 반에서부터 해 볼 생

각이에요. 내년에는 3학년으로 올라가서 계속 독서 지도를 해 볼 생각입니다.”

박혜정 선생님의 교육적 열정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박혜정 선생님의 열정의 원천은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일 그 자체로부터 우리나라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좋은 까닭은 바로 아이들이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박혜정 선생님은 사회와 인생에 대하여 근본적인 회의론을 품고 있었고 어디에서도 세상을 바꿀 가능성을 찾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순수하고 미완성의 존재이다. 박혜정 선생님은 국어교육의 개혁을 통해 사람과 사회를 개혁하고자하는 필생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박혜정 선생님의 교육적 열정의 또다른 뿌리는 사람과 사회를 바꾸어 보겠다는 근본주의적인 희망이다.

#### ◇ 그러나 교사는 매우 피곤하다

10월 18일 면담에서 박혜정 선생님은 학교일과 몇 가지 다른 일들 때문에 거의 쉴 틈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 일에 대하여 전혀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10월 28일 수업 참관이 이루어진 후 박혜정 선생님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실토힐다. 이날 독서 퀴즈 대회를 세 반 진행하고 H 신문사에서 취재온 것까지 마무리한 뒤 연구자와의 면담을 위해 교무실로 내려와서는 "지금 머리 속이 하예요."라고 하신다. 박혜정 선생님은 교직에 발을 들여놓은 후로 거의 언제나 너무나 바쁜 몸이었다.

### 나. 수업을 보는 눈에 변화가 생긴다

#### (1) 박혜정 선생님의 수업에 대한 초기의 관점

연극 수업 이후 본격적인 수업 참관이 시작되던 시기에(10월 21일과 22일) 연구자는 박혜정 선생님의 수업에서 '너무 빠빠하다', '교사는 너무 바빠다'는 인상을 받았다. 교실에서는 박완서의 '자전거 도둑'을 읽고 질문 만들고 답을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수업 분위기 잡기, 과제 설명 등이 이루어지는 도입부가 지난 다음에 곧바로 학습 활동으로 넘어간다. 박혜정 선생님은 전체 교실과 그때 그때 상호작용하는 한편 교실 순회지도로 들어간다. 순회 지도는 30초에 1명꼴로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 이 때 박혜정 선생님은 학생이 무얼 하고 있었는지 점검하고 노트에 적어 놓은 것을 읽어본 다음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고 교정해 준 다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순회 지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번 순회 지도를 받은 학생이라도 필요한 경우 두세 번 더 지도를 받기도 한다. 그러다가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오류가 있으면 선생님은 '자 여기 봐요'하고 모든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한 다음 주의할 점을 알려준다. 교사가 순회 지도를 하고 있는 사이에도 학생들은 거의 '딴짓'을 하지 않는다. 상습적으로 교사에게 지적되는 몇몇 학생이 간혹 뒷사람과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거나 멍하니 앉아 있거나 할 뿐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 시간 내내 과제에 열중한다.

박혜정 선생님의 수업의 특징 중의 하나는 학습 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언어적 상호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연구자가 참관을 하던 기간에는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라든지 교사가 최근 보고 겪었던 일이라든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다든지 하는 교사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 수업 시간에는 오로지 수업만 이루어졌다. 이러한 광경은 얼마 전 M 교사와의 인터뷰에서 M 교사에게서 들은 수업 풍경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었다. 즐거운 수업을 지향하는 M 교사는 한 시간 수업 중에서 실제 학습과 관련된 이야기는 한 20분 정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상 경험담을 들려준다고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M 교사는 학생들의 관심을 잡아끈다. M 교사는 간혹 학생들

에게 농담조로 이렇게 혼을 낸다고 한다. “너네들 정말 수업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딴짓하고 안 들을래?”

두 교사가 학생들의 딴짓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방식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박혜정 선생님은 한 시간 내내 잠시도 결길로 빠져나가지 아니한다<sup>11)</sup>. 연구자는 박혜정 선생님의 이런 수업 방식에 대하여 중학교에서 13년째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아내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수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연구자의 설명을 들은 후 아내가 먼저 이야기한다.

“어쩌면 이렇게 굳더더기 하나 없이 공부만 할 수 있을까?”

“그래, 보통은 딴 소리도 좀 하고 옆길로 빠지기도 하는데...”

“지난 번에 말한 M 교사와는 너무 대조적인데.”

“음, 하지만 난 박혜정 선생님의 수업이 좋은 수업 사례의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수업이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연구자가 이런 판단을 한 데에는 최근의 독서 경험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수업 참관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초등학교의 교실 수업을 참여 관찰하고 수업 비평을 하는 서근원의 글들에 감탄을 하고 있었다. 특히 서근원의 “학교 수업의 구조와 교사의 딜레마”라는 글에서 필자는 우리 나라의 어느 교실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교실 풍경을 묘사한 후 그러한 교실 수업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구조적 맥락을 지적한다.

이 수업 장면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일부 학생들이 이 시간에

---

11) 연구 텍스트 검토 단계에서 박혜정 선생님은 자신의 수업이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말하였다. 박혜정 선생님은 수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이지만 특별한 계기가 있을 경우 시간을 내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한다. 예컨대 박혜정 선생님은 참관이 끝난 직후 지회 참심 대회에서 들었던 영국의 교육 시장화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 주었다고 한다.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그 학생들이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일부 학생들이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진도를 나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서근원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학생 요인과 교사 요인을 차례차례 짚어본다. 하지만 그러한 요인들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님이 확인된다.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었다. 학습 능력과 태도면에서 많은 편차를 보이는 과밀한 학급, 기계적이고 양적인 교육과정, 교육과정을 구체화시킨 교과서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교육 풍토 등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것이다. 결국 이 땅의 교사들은 학생들 각각의 특성과 수준과 상황에 따라 실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수업을 하다 보면 기계적이고 양적인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고 정해진 교육과정을 쫓아가다 보면 학생들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게 되는 딜레마 상황에 부딪치게 된다. 서근원은 교사들이 교실에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악전고투하는 모습을 사례별로 제시하고 있다<sup>12)</sup>.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소위 좋은 수업 사례로 제시되는 수업 장면들은 자칫 현실적인 학교 수업의 구조적인 모순을 은폐하는 기능을 할 수가 있다. 즉 우리나라 공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를 교사 개인의 능력 차원으로 환원시켜버리는 것이다. 진정한 수업 연구라면 사태의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연구자는 서근원의 글을 읽으면서 내가 수업 연구를 한다면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연구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박혜정 선생님의 수업은 연구자에게 웬만한

12) 서근원은 '딜레마 벗어나기'라는 제하에 학생 통제, 시간과 공간의 질적 운영, 흥미 유도, 교사의 동선, 교과서 중심 수업, 징검돌 놓기, 학생 중심 수업, 최소화 수업, 교육과정 재구성, 질적인 방식으로의 전환이라는 10가지 테마를 다루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개발센터 장학지원 - 현장 보고 - 수업 이야기 참조. (<http://classroom.kice.re.kr>)

사람은 흉내를 내기도 어려운, 그리고 교사에게 과도한 집중력과 노력을 요구하는 피곤한 수업으로 비쳤다. 그래서 연구자는 박혜정 선생님의 수업을 평하면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하였다. “7차 교육과정을 구상한 교육 당국의 입맛에 꼭 맞는 수업인 것 같아.” 요컨대 연구자는 박혜정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절대로 표준적인 수업이 될 수는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모범적인 수업으로 간주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수업 참관이 계속되면서 박혜정 선생님의 수업에 대한 연구자의 이런 판단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고 있었다. 참관이 끝난 시점에서 성찰을 해 보건대 이러한 변화는 주로 박혜정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와 학생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 (2) 박혜정 선생님의 학생관이 드러나는 몇 가지 에피소드

### ◇ 에피소드1: ‘아이들은 관계의 친밀성으로부터 학습 동기가 유발된다’

10월 28일 박혜정 선생님을 만난 자리에서 연구자가 박혜정 선생님의 교실 장악력을 칭찬하자 박혜정 선생님은 학년 초부터 아이들 하나 하나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들이는가를 설명해 주셨다. 학년이 시작될 때 아이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기 위해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글쓰기를 한다고 한다. 물론 박혜정 선생님이 스스로 먼저 시범을 보이신다고. 아이들 앞에서 ‘나’를 다 드러내 보이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 앞에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겠지 하고 연구자는 생각한다. 글을 쓴 후에는 선생님이 학생들의 글을 일일이 검토하고 흥미롭고 중요한 부분들을 골라 아이들에게 읽어주신다. 그러면서 아이들 하나하나를 알아가게 된다.

박혜정 선생님의 수업 방식은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라포를 형

성하는 문화인류학자들의 작업 방식과 유사하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 아이를 파악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 아이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는가?

10반의 소위 '문제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진다. 박혜정 선생님은 그 아이들 하나하나의 특성과 장점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다. 진호<sup>13)</sup>는 논리적인 사고가 부족하고 학습을 지겨워하지만 감성적인 능력은 매우 뛰어나다고 한다. 미영이도 가끔씩 사고는 치지만 마음씨가 착하고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영대는 요즘 수업에 끈질기게 참여하며 제일 문제인 학생이 광수인데 광수가 문제가 되는 것은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일학기에 시작한 시 쓰기 수업에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시를 의외로 잘 쓰기에 '기회는 이 때다' 하고서는 좀 부풀려서 칭찬하고 격려했더니 국어 수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현재 제일 문제를 보이는 아이는 미정인데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박혜정 선생님이 학생 하나하나와의 관계 형성을 중시하는 까닭은 다음의 말에서 단번에 이해된다. "아이들은 관계의 친밀성으로부터 학습 동기가 유발돼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나를 잘 아는 선생님의 수업을 아이는 좋아하고 열심히 공부하게 마련이지요."

### ◇ 에피소드2: '그런 아이는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돼요'

11월 3일, 박혜정 선생님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연구자는 10월 30일 수업 참관 직전에 있었던 은영이 사건이 궁금해서 물어보았다. 은영이는 연구자의 CA반에서 활동하는 아이이고 책을 많이 읽기로 유명한 아이이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난 주 수요일엔가 어머니와 함께 주눅이 들어서 교무실로 들어선 일이 있다. 어머니는 한 손에 꽃바구니를 들고

13) 학생들 하나하나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다. 이하도 마찬가지이다.

서 D 교사를 찾는다. 옆에 있던 선생님이 은영이에게 무슨 일이라고 묻자 아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인다. 선생님께 무슨 잘못을 한 모양이구나 하고는 2교무실로 보냈었다. 그리고서 지난 금요일, 10반 수업을 관찰하려고 2교무실에 들렀을 때 박혜정 선생님이 D 교사와 은영이 문제로 목소리를 높여가며 격론을 벌였었다. 그게 무슨 일이었는지 필자는 궁금했다.

일은 은영이의 일기에서 시작되었다. 은영이가 사회 수업 중 공부하는 안 하고 글만 쓰고 있어, D 교사가 그 글을 빼앗아 읽었는데, 그 글에 독서 퀴즈 대회에 대한 심한 욕이 들어 있어서 은영이를 불러다가 훈계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은영이가 교사의 훈계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남의 글을 그렇게 훔쳐 보는 것이 인권 침해가 아니냐며 대들었다. 그러자 화가 난 교사가 부모님을 소환한 것이다.

박혜정 선생님은 그렇지 않아도 억눌려 있는 아이를 그런 식으로 눌러 버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아이는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선 절대로 아이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이다. 불만이 많은 아이에게는 반드시 자기의 힘으로는 풀 수가 없는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아이의 태도는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다. 연구자는 박혜정 선생님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은영이는 논술토론반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는데 문제는 참을성이 부족하고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입에서 욕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아이들이 은영이를 멀리한다. 지난 번 토론에서도 은영이가 사회자 역할을 하였는데 토론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격에 어울리지 않게 욕을 늘어놓았다. 은영이에게는 상대방을 배려할 만한 여유가 없다. 그런데 이런 은영이의 문제는 필경 다른 곳에 원인이 있음이 분명하다. 예컨대 어떤 정신적 외상 같은 게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은영이를 억누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당연히 인격을 존중해 주는 우호적인 상담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에피소드3: '저는 인성 교육을 제일 중시해요'

박혜정 선생님은 여러 차례 인성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래서 11월 3일의 인터뷰에서 연구자는 박혜정 선생님께 인성 교육에 대하여 물었다.

"저는 인성 교육을 제일 중시해요. 하지만 특별한 비결이나 인성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수업 시간에 말을 할 때 칭찬이나 '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하지요."

"애들이 거친 것은 자신감이 없고 혼자 힘으로 해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하고 '대단하구나' 하고 좀 과장되게 칭찬을 해 주지요."

박혜정 선생님이 생각하는 인성 교육의 핵심은 아이들에게 자신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 이기심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썩히지 말고 개발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 중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도록 하는 데에 첫 번째 강조점을 둔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해야 비로소 아이들이 변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시하는 부분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기심을 버리고 남을 배려하라는 훈화를 많이 하는 편이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강조한다. 교실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요즘의 세태에서 교사로서 새겨 둘 만한 대목이다. 또 하나 박혜정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을 썩히지 마라, 끝까지 '나'를 찾아봐라'는 말. 스스로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 아닐 수 없다.

박혜정 선생님의 인성 교육에 대한 생각은 구체적인 수업 활동 프로그램 곳곳에 배어 있다. 예컨대 박혜정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읽힐 책을 선정할 때 앞서 언급한 인성 교육의 기준을 고려한다. <상처받은 거장, 윤이상>, <우리 누나>, <문제아> 같은 것이 그러한 것이다. 이번 독서

퀴즈 대회 선정 도서의 경우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다. <다영이의 이슬람 기행>을 통해서는 다른 문화권을 배려하는 마음을, <그리운 매화향기>에서는 소외받은 이웃에 대한 관심을, <마당을 나온 암탉>에서는 자아를 찾아가는 투쟁이 얼마나 감동적인가를 느끼게 하고 싶었다고 한다. 요컨대 박혜정 선생님의 인성 교육은 교육 프로그램 자체에 잠재되어 있거나 수시로, 시시때때로, 계기가 있을 때마다 이루어진다<sup>14)</sup>.

연구자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박혜정 선생님의 관점과 태도를 접하면서 저절로 '아, 그렇구나'하는 공감을 표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감을 느끼면서 연구자의 마음 속에서는 수업 관찰을 시작할 때 지녔던 평가 관점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체되어가고 있었다. 연구자는 처음과는 다른 관점에서 박혜정 선생님의 수업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참관이 시작될 무렵 연구자는 수업 운영 방식의 측면에서 박혜정 선생님

---

14) 필자는 연구 텍스트 검토 단계에서 박혜정 선생님으로부터 인성 교육과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박혜정 선생님은 '문제아'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 온 오랜 경험을 통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비결을 터득했다고 하였다. 그것은 그 아이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 장점으로부터 그 아이의 변화 가능성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의 장점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박혜정 선생님은 그 아이의 장점을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즉 그 아이의 장점을 칭찬하면서 그 아이로 하여금 다른 무언가를 하게끔 하려는 의도를 교사가 지니고 있다면 그 아이는 분명히 거기에 대하여 반발하게 마련이고 교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교사가 아이의 장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것을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서야 한다고 한다. 교사는 '문제아'에게서 어떤 장점을 발견하면 그 장점으로부터 변화 가능성을 감지하여야 하며 그것을 근거로 그 아이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그 아이를 마음으로부터 깊이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 아이는 반드시 변하게 된다는 것을 박혜정 선생님은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고 한다. 박혜정 선생님은 현재 K 중학교에서 다른 교사들이 다 '내놓은' H 학생을 사랑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이런 과정을 통하여 J 학생, G 학생 같은 K 중학교에서는 유명한 아이들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의 수업을 평가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수업을 볼 때 관찰자는 수업 운영의 효율성의 측면을 따져보게 마련이다. 그런데 수업 참관이 이어지고 박혜정 선생님과 심층 면담이 여러 차례 반복됨에 따라 연구자는 박혜정 선생님이 왜 그런 수업 운영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철학'의 차원에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박혜정 선생님의 수업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박혜정 선생님의 개인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면서 더욱 확연해졌다. 다음은 박혜정 선생님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이다.

### (3) 박혜정 선생님의 성격

#### ◇ 의도한 대로 하고야 미는 성격

박혜정 선생님의 수업 운영 방식의 특성은 엄격함이다. 절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수업 관리 방식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연구자가 박혜정 선생님의 엄격하고 밀도 있는 수업 진행과 산만하고 떠들썩한 자신의 교실이 자꾸만 비교된다고 하면서 수업이 뜻대로 잘 안된다고 하자 박혜정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도 처음 학교에 갔을 때는 아이들을 다 포용하려고 했어요. 다 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 방식을 바꿨어요. 우선 수업이 내 의도대로 안 되더라고. 그래서 교실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20년 노하우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하지만 엄격한 교실 관리가 어디 아이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겠는가?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한 깊은 관계 맺음, 일관된 교실 수업의 원리 원칙 지키기, 아이들의 학습 과정에 대한 밀도 있는 피드백, 이런 것들이 일체가 되어 교실이 선생님의 의도대로 이끌어지는 것이다.

수업을 자신의 의도대로 이끌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박혜정 선생님은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하고야 마는 성미이다. 다음은 N 중학교에서의 도서실 살리기 운동을 할 때의 경험으로 박혜정 선생님의 성격을 보여 주는 일화이다.

박혜정 선생님이 처음 서울의 가난한 지역에 위치한 N 중학교에 갔을 때(1998년) 아이들은 방향을 찾지 못하고 힘을 발산하지 못하여 평평 터지는 양상이었다. 생각과 경험의 면에서 앞서 근무했던 강남의 B 중학교의 아이들과 심각한 격차를 느꼈다. 아이들과 이야기가 안 통할 정도였다. 그 아이들을 붙들고 방향을 잡아 주기 위해 처음에는 교사 장학회를 만들고 댄스반을 조직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반성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댄스반을 통해서 일시적인 에너지 분출을 맛보기는 하였으나 아이들은 여전히 의지력이 약하고 꿈이 없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 가는 것, 자부심을 가지는 것, 그래서 자아를 튼튼하게 하는 것, 내 꿈을 가지는 것' 이런 것을 위해 '책을 읽히자'고 결심하게 된다. 독서를 통해 삶을 반성하고 흩어진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사물의 본질에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책'이다. 더 나아가 평생을 통해서 공부를 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독서 교육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아이들의 교육 과정이 중학교에서 끝날지라도 스스로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머리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만 있으면 공교육은 성공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독서지도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N 중학교에서 2001년에 시작한 것이 도서관을 이용한 독서 수업이었다.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독서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가난한 아이들과 책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은 영원히 책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책은 오

히려 불평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든 싫어하는 아이든, 부유한 아이든 가난한 아이든, 모두가 책을 통해 자기의 능력을 키우고 올바른 인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합니다.”(H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1월 10일자)

공교육의 책무와 관련하여 심각하게 곱씹어볼 대목이다. 학교에서 독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책을 읽을 환경이 못 되는 가난한 아이들은 영원히 책과 등을 지게 된다. 현대 사회를 지식이 있는 사람이 힘을 가지는 지식 기반 사회라 하는데 공교육에서 체계적인 독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책’이 오히려 불평등한 사회를 심화하고 유지시키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부자에게나 가난한 이에게나 책에 접근하는 기회는 공정하게 주어져야 하고 그러자면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독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N 중학교의 상황을 진단해 보니 독서 교육을 위한 학교의 환경은 심각한 상태. 도서관은 먼지를 뒤집어쓴 채 창고처럼 방치되고 있었다. 독서 교육을 위해서는 도서관이 학교의 중심이 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학교 도서관 살리기 운동’. 이를 위해 ‘학교 변화를 위한 교사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한다.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고 교감 선생님, 부장 선생님 등 35분의 선생님들이 발의를 하여 교장 선생님께 ‘방향 없이 날뛰는 아이들에게 방향을 세워 주기 위해’ 도서실 살리기를 건의하였다. 앞서 나가는 사람은 언제나 굶은일을 맡아 하게 마련이다. 박혜정 선생님은 ‘도서실 운영’ 담당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도서실 운영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때 동작도서관 사서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20일 만에 도서실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시켰다.

박혜정 선생님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도서실 활용 독서 수업은 ‘아이들이 언제나 바글바글하는 도서실’, ‘도서실 활용 수업이 일상적으로 이

루어지는 도서실'이었다. 그런데 정상적인 수업을 하면서 도서실을 그렇게 운영하기란 초인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사서 채용을 요구하게 된다. 도서실의 운영은 사서에게 맡기고 박혜정 선생님은 더욱 본질적인 활동인 독서 지도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 때 교장 선생님의 반응은 한마디로 NO였다. 이미 도서관 살리기 운동으로 1,2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고 학교 예산이 다 짜여진 상태라 사서를 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박혜정 선생님은 여기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만약 예산을 따 오면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한 다음에 여기저기 예산 확보를 위해 뛰어다녔다. 이러한 노력 끝에 결국 교장 선생님이 두 손을 들고 말았다. 학교 예산으로 사서 채용을 하기로 한 것이다. 그 날이 3월 30일. 인터넷을 통해서 사서를 구했다고 한다. 박혜정 선생님의 추진력이 실감된다.

#### ◇ 문제를 발견하면 반드시 풀고야 마는 성격

다음은 11월 11일, K 중학교 분회 참실 대회 뒤풀이 자리에서 연구자가 들은 이야기이다. 박혜정 선생님이 강남의 B 중학교에 있을 때의 경험담이다. 박혜정 선생님이 처음 B 중학교에 갔을 때 왕따 문제가 매우 심각했다고 한다. 반마다 왕따가 문제가 심각하여 선생님들이 선불리 손을 댈 수 없었다고 한다. 잘못 손대었다간 피해 학생은 더 심한 보복을 당하고 결국은 입을 다물어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고 한다. 담임 선생님들도 모두 손을 들고 포기한 상황이었다. 그때 박혜정 선생님은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서는 학교가 정상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왕따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학생들과 면담을 하고 실태를 조사하고 뜻을 같이하는 선생님들을 모으고 하는 작업 끝에 여름 방학이 지나고 2학기가 시작될 무렵 교사들을 대상으로 '왕따' 문제의 실태를 보고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문제의 심각함이 모든 교사들에게 공유되었고 거기서 교장에게

문제 해결의 방안을 건의하였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교장 선생님이 그 건의를 받아들였다. 박혜정 선생님은 문제 학생들을 주도자 그룹, 가담자 그룹, 방관적 동조자 그룹으로 나눈 다음 첫째, 왕따 문제의 뿌리인 악질적인 몇몇 학생들을 전출시킬 것, 둘째,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선도할 것, 셋째, 세 번째 그룹에 속하는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상담할 것이란 원칙을 세웠다. 이런 조치가 시행된 후 학교가 조용해 졌다고 한다. 박혜정 선생님의 문제 해결 스타일을 볼 수 있는 일화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본질을 끝까지 파헤치고 기필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관과 개인적 특성 때문에 박혜정 선생님은 교실에서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의도한 대로 수업을 이끌어나가는 것이다. 박혜정 선생님이 보이는 엄격하고, 군더더기 없고, 언어적 상호작용이 많은 템포가 빠른 수업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필자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관점이 다르면 전혀 다른 것이 보인다는 말을 실감한다. 연구자는 수업 참관이 계속될수록 수업을 보는 눈이 수업 방식의 차원에서 철학의 차원으로 심화되고 있었다.

#### 다. 연구의 목적에 대한 두 교사의 대화와 상호침투

수업 참관이 시작된 이후 박혜정 선생님은 연구의 성격과 목적에 대하여 몇 차례 흥미와 함께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고 싶는데 괜찮겠지요?

질문 1. 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지?

질문 2. 나를(동료 교사 수업 참관) 통해 얻으려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메일

박 10\_27)

“그런데 이렇게 힘들여 연구를 해서 무엇을 하려는 거지요?” (10월 28일 인터뷰에서)

연구자는 질문 1과 질문 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냈다. 이 편지에 이번 연구에 대한 연구자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으므로 길게 인용한다.

(이 연구에) ... 처음에는 상당히 수동적으로 연구에 임했지만 이 연구가 지향하는 바가 내가 꿈꾸던 지향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상당히 열성적으로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

교사로서의 경험이라야 이제 겨우 만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교사연구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교사-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현장 교사가 현장 연구를 하지 않으면 교육 개혁이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지 선생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요? 교사는 제도적으로 연구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또 하나 제가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법 어디를 뒤져 보아도 교사의 권리와 의무 항목 중에 '연구'와 관련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구를 하지 않는 교사가 어떻게 교육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 교육 제도의 어디에도 교사의 연구를 보장하는 구절을 찾을 수 없습니다.

현장 교사가 교육 내용에서는 항상 강단 연구자들에게 종속되어 있고, 강단 연구자들의 이론이 현장에는 전혀 유용하지 않고 현실에도 맞지 않음에도 제대로 반박조차 못하는 까닭은 교사-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교육과정 때문에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현장에서 '연구할 권리와 의무'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육현장이 너무나 정체되어 있어서 교육 개혁은 내부에서 일어날 수 없고 외부에서 충격을 가해야만 가능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도 교사가 자신의 실천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는 활동인 현장 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이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는 밑바탕에는 그것을 보장할 근거가 전혀 없는 현행 교육 제도

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도를 탓하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제도가 바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교사가 마땅히 연구를 해야 하며 충분히 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연구도 한다는 것을, 아니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교육전문직'으로서의 현장 교사의 지위를 찾는 길이요, 정체된 교육 현장에 변혁의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장 연구는 ...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도하고 있는 교실에서의 질적 연구도 그러한 연구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사-연구자에게 적합한 연구 방법의 하나인 셈이지요.

저는 현장에서의 교실 연구가 교육 개혁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에 분명히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고력 교육을 통해 교실을 개혁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개혁까지를 꿈꾸는 선생님의 비전에 비해서는 소박하지만 저도 나름대로의 교사상과 교육 개혁의 비전을 만들어가고 있지요. (이메일 연 10\_27)

10월 28일에는 세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과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다음은 그 날의 연구 일지의 일부이다.

내가 '현장의 두 교사가 수업 참관을 통해 어떻게 변해가는가, 생각이나 행동에서 어떤 변화를 겪는가'를 생생하게 보고하는 것이 연구의 직접적인 목적이라고 했더니 '이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학회에 보고만 하고 끝내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신다. 박 선생님의 생각은 현장에서 수업을 공개하고 참관하는 일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라면 연구를 위한 한 번의 행사로 끝내지 말고 계속 확산시켜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박 선생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은 이 연구 자체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동료 교사들 사이에 수업을 공개하고 참관하는 일은 운동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그럼 이 연구의 결과는 실제적인 문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네요.' 박 선생님의 말이다. 지금 생각해 보니 박해정 선생님은 아마도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교육의 개혁'을 내 걸어 놓고 실제로 교육의 개혁에 기여를 못한다면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신 것 같다. 어쩌면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생각

하지 못하던 나의 모순일 수도 있다. 교육과 연구 사이에 다리를 놓기만 하면 교육 개혁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육 개혁이란 교육과 연구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정도의 반향을 일으키는 것이 전부일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하여 박혜정 선생님과 나 사이에 이견이 존재한다. 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실천을 통하여 변화를 경험하지만 실천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이러한 인식은 학문적 성찰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연구는 수업 공개와 참관을 통해 교사가 변화하는 과정을 학문적으로 성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하면 이런 견해의 차이는 대상을 보는 관점의 차이에 기인한다. 내가 연구를 중심으로 실천을 바라본다면 박혜정 선생님은 실천을 중심으로 연구를 바라본다. 이 연구가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치고 만다면, 그리하여 아무도 들춰보지 않는 종이 더미 속에 묻히고 만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에 대해 내가 '하지만 이 연구의 결과인 보고서가 실천을 위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라고 하자 박혜정 선생님은 좀 실망스럽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이 문제에 대하여 박혜정 선생님은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넌지시 묻는다. 박 선생님은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신다. 아직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듯. 아니면 아직 생각을 밝힐 계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신 것일 수도 있다. 아무튼 실천이 먼저인가, 연구가 먼저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계속 고민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 (연구일지 10\_29)

박혜정 선생님은 수업 참관 연구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무척 흥미롭다', '쌤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다' 등의 반응을 보여주었고 수업 참관이 끝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번 일은 내가 더 고마워해야 할 것 같네요.(처음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하하!)'라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연구의 구체적인 성격과 목적에 대하여는 분명 약간의 이견이 존재하는 듯하다. 그것은 한마디로 연구를 중심으로 실천을 보는 것

과 실천을 중심으로 연구를 바라보는 차이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이번의 짧은 경험을 통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 다만 필자가 느끼기에는 두 교사 사이의 연구와 실천의 상호침투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는 수업 참관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참교육 실천 보고 대회인 전교조 분회 참실(참교육 실천 대회)과 지회 참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박혜정 선생님은 연구 보고서의 가치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을 가지고 있는 듯하나 이번 연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수업 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내 수업에 관해서, 나는 앞으로 내 수업을 스스로가 좀더 철저히 연구하고 자료 정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원래 실천을 몹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수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여 기록까지 해 볼 생각은 염두에 두지 않았었다. 그것은 형식처럼 보였고, 또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하나라도 더 실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엄훈 쌤이 보내오는 관찰지와 연구일지들, 또 나를 경악시켰던 여섯 시간의 작업 끝에 만들어진 1시간짜리 내 수업 전사 내용들을 보면서, 그 만큼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수업에 대해 스스로가 치밀하게 분석하여 검증해 보면 자신의 장점과 문제점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으니, 그것을 시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다. ... 그리고 엄훈 쌤을 통해, 무엇보다도 나는 현장 연구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가 말한 연구가로서의 교사인 사람.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겠단다. 지금과 같은 악조건 속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되어지는 속에서, 그런 사람은 꼭 있어야만 하겠다는 것. (수업 공개 교사 소감문 11\_11)

박혜정 선생님의 이러한 생각은 현장에서의 실행 연구가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작업이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듯하다.

## 라. 수업 참관의 영향

### (1) 연구자

연구자는 이번 수업 참관 연구를 통해 처음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를 겪었다. 이 연구는 연구자에게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 연구는 연구자가 자신의 교실 수업 행동 하나하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교사-연구자로서의 자신의 삶 전체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 ◇ 수업 참관 경험이 참관 교사의 수업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것은 나 자신의 행동을 보는 것이다. 박혜정 선생님의 수업을 관찰하고 관찰한 결과를 기록하느라고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박혜정 선생님의 수업을 관찰한 경험이 연구자의 수업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 연구자는 수업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반성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나의 교실 수업 분위기는 왜 이리 산만하고 밀도가 없을까?

'어떻게 하면 박혜정 선생님의 교실처럼 권위와 질서를 세울 수 있을까?

'나는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내버려두지는 않는가? 그들을 교정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선부른 판단을 마음 속으로 내려 놓지는 않았는가?

'나의 수업은 왜 자꾸만 맥이 끊길까? 수업의 진행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통제하는 것과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생의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은 충분한가?

'나의 수업은 수업 시간 계획이 왜 자꾸만 늘어지는 것일까?

또다른 한편으로 박혜정 선생님 수업에서 보거나 들은 것을 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시 심사하기와 체험을 바탕으로

로 시 쓰기 활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어느 날엔가는 수업을 하다가 박혜정 선생님의 말투까지 흉내 내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다. 하나의 설명이 끝나고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는데 갑자기 연구자의 입에서 '그 다음..' 하는 말이 튀어나온다. 아마도 빠른 템포로 설명을 밀도 있게 하는 박혜정 선생님의 방식이 연구자에게 영향을 미쳤나보다. 아이들에게 활동을 안내한 다음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연구자의 모습에서도 박혜정 선생님의 영향이 느껴진다. 물론 전에도 그런 식의 학습 지도를 해 오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습 부진아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실 수업 전개의 면에서 효율적이기도 하다는 관찰 경험이 작용하고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요 며칠 사이에 나는 말썽꾼으로 눈엣가시 같던 아이들 몇 명을 재발견한다. 그 한 예가 7반의 H. 언제나 교사의 눈치를 살피며 미꾸라지처럼 공부란 안 하고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것이 얼굴에서 읽힌다. 최근 들어 Y, K와 더불어 한통속이 되어 소란을 일으킨다. 1학기 같았으면 바로 혼을 내고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라고 권위로 눌렀을 텐데 이제는 그러한 행동이 교사의 관심을 끄는 방편일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 (연구일지 11\_9)

연구자는 박혜정 선생님의 수업을 참관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새로운 학생관으로부터 출발하여 학생의 학습 지도를 새롭게 시도해 보고 그 경험을 기록해 두었다. H가 그 사례. 연구 교사는 H를 붙들고 앉아서 시 고쳐쓰기 지도를 하였다. 아이의 시적 재능을 발견하고 칭찬해 가면서 개선할 점을 찾아보는 활동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H에게) 새 종이를 주고 (시를) 깨끗하게 정서를 해 오라고 하니 혼자 구석에 가서 진지하게 정서를 해 가지고 온다. H에게서 저렇게 진지한 표정을 보는 것은 처음이다.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하여 끈기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을 얼마

나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나는 최근 들어 여러 차례 깨닫는다. 같은 반의 Y.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하지 않고 한 시간 내 소란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말썽꾼이다. 그 동안 나는 녀석을 억누르고 복종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아 부어왔다. 그러나 제대로 먹힌 적은 거의 없다. 그러다 최근 들어 녀석을 쫓아내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었다. 녀석을 친구들 앞에서 칭찬해주고 애정과 친근감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붙들어 앉혀 놓고 학습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 때 녀석의 영향권 안에서 놔두는 녀석들을 다 끌어다 앉혀 놓고 도와줘 가면서 공부를 시킨다. 전에도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방법이 우리 나라의 교실 수업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었다. 그러나 요즘 나는 그러한 시도를 통해 전에는 모르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녀석들은 일부러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안 하는 것이다. 교사가 그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어서 활동을 안내해 줄 때 보여주는 녀석들의 열의와 진지함에 나는 놀랐다. 이러한 방식이 이렇게 효과적이라면 양적이고 기계적인 교육과정과 과밀이질 집단이라는 우리의 교실 조건에서라도 학습 부진아에 대한 직접 지도의 방안을 짜내는 것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길일 것이다. (연구일지 11\_9)

연구자는 자신의 수업 행동에 미치는 박혜정 선생님의 강한 영향력이 박혜정 선생님의 수업 방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대하는 박혜정 선생님의 자세, 태도,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대할 때 고수하는 원칙 같은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한마디로 그것은 박혜정 선생님의 철학이었다. 박혜정 선생님은 뛰어난 교수 기술, 뛰어난 교실 통제 방법을 체득하여 교실에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대하는 선생님의 교육 철학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박혜정 선생님의 수업을 보면서 하나의 수업을 보면서 그 수업을 표면적으로만 보는 것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기록 수 있음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요즘 나는 파울로 프레이리의 교사론을 읽고 있다. 프레이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교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노력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반드시 고수해야 할 원칙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연구일지 11\_9)

연구자는 박혜정 선생님의 수업 행동에 자신의 수업 행동을 비추어 보면서 그러한 행동 하나하나를 반성한다. 그러면서 수업 관찰 경험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박혜정 선생님 수업 관찰 경험은 나의 수업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마도 그러한 영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학생들의 행동을 바라보는 눈, 다시 말해 학생들을 보는 관점에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연구일지 11\_9)

#### ◇ 교사-연구자로서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다

연구자는 이번 연구를 통하여 교사-연구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교사-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는 교사로서의 삶보다 연구자로서의 삶을 먼저 시작했다. 그가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던 와중에 K 중학교에 복직하였을 때 그는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이 몰과 기름처럼 상호침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전투하듯이 보냈다. 그런 상황에서 그에게는 연구를 업무로 인정하는 대학에 자리를 잡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국어교육을 연구한다는 연구자가 국어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발을 뺄 궁리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연구자는 언젠가부터 이 문제를 우리 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명색이 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교육 현장에서 버터내기가 이렇게 어렵다니. 우리나라에서 교사가 연구를 한다는 것은 특이하고 비일상적인 행동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교사가 연구를 하지 않거나 교육을 연구하는 학자가 교육 현장을 떠나려고만 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연구일지 11\_9)

이 상황에서 연구자는 교사-연구자라는 당위적이고 원론적인 주체를 해결책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 교육학이 살아나려면 교사가 현장에서 교육을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론적이고 당위적인 해결책은 연구자에게는 너무 먼 길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연구자의 주된 연구 분야는 조선시대의 담화 장르, 그 중에서도 논증 장르에 대한 연구였

던 것이다.) 연구자의 연구 대상과 연구 결과는 연구자가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거의 관련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 학년도에 가르치고 연구하는 연구자의 삶에 상당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교실 평가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자가 교육 현장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연구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개척해야 할 연구 분야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그런데 최근 나는 연구자로서의 나의 삶에 대하여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요 며칠 사이에 나의 머리 속에는 평생 억압받는 자의 교육에 헌신하면서 자신의 실천에 대한 성찰을 멈추지 않았던 파울로 프레이리나 호산도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자산어보를 쓴 정약전에 대한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다. ... 나에게서는 대학 강단의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교육 현장이 있다. ...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연구를 하자. 여건이 좋지 않다면 여건을 개선시켜가면서 연구를 하자. 교육 현장을 연구의 테마로 삼고 교육 현장을 연구의 공간으로 삼아서 교육 현장을 탈바꿈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교육 상황에서는 더욱 급선무일지도 모른다. (연구일지 11\_9)

교사-연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K 중학교에 복직하던 무렵부터 간간히 생각하고 있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연구자의 삶의 문제로 되기 시작한 것은 교실 평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였다. 그러다가 교사-연구자로서의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하기 시작한 것은 박혜정 선생님의 수업을 관찰하면서 서부터이다. 현장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성찰하는 교사의 삶은 그 자체가 연구와 실천의 praxis가 아닌가? 연구자는 이번 교실 수업 관찰 경험을 통하여 현장에서의 삶에 대한 성찰이 진정한 성장의 자양분이며 성실하고 진지한 성찰의 보고서가 현장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젖힌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 (2) 박혜정 선생님

### ◇ 참관자의 피드백으로 인해 자신의 수업에 확신이 생기다

박혜정 선생님은 연구자가 보내준 관찰지와 수업 전사지가 계기가 되어 자신의 수업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회를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연구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개척해온 수업의 특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자신의 수업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특히 나에게, 이것(자신의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은 그 동안 고민하고 연구하며 만들어 낸 나의 여러 수업 프로그램들과 수업 방식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나는 좀더 진지한 자세로 이 일에 임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엄훈 쌤이 보내오는 글들을 더욱 꼼꼼히 읽으며, 내가 내 수업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 속에는 그 동안 내가 어렵듯이 느끼고 생각한 것들이 분명한 말들로 설명되어 있었다. (수업 공개 교사 소감문 11\_11)

박혜정 선생님은 연구 텍스트 집필이 시작된 단계에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내가 체험한 가장 큰 변화라면 나의 수업에 대한 확신”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 ◇ 베테랑 교사와 신참 교사 간의 수업 공개의 필요성을 절감하다

박혜정 선생님은 이번 수업 공개 경험으로부터 참관 교사가 받은 영향을 보면서 베테랑 교사와 신참 교사 간의 수업 공개가 절실함을 깨달았다고 했다.

엄훈 쌤이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초임 시절의 내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듯하여 한편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몹시도 놀라웠다. 그렇지,

맞아. 이런 일(아이들을 장악하지 못하여 계획했던 대로 수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결국 울화를 터트리게 되는 일)은 초임 시절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왜 다들 그래야 하는 것이지? 것처럼 그 일을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왜 다들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이것을 단축시키거나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 내가 만일, 좀더 동료 교사들과 이런 문제들을 진지하게 토론해 보고, 본이 될 만한 선배 교사들의 교실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다라면, 이런 시행착오는 좀더 빠른 시간 내로 끝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기회는 처음부터 차단되어 있었고 ... (수업 공개 교사 소감문 11\_11)

#### ◇ 현장 연구의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다

앞서 '연구의 목적에 대한 두 교사의 대화와 상호침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박혜정 선생님은 현장 연구의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반복되는 내용 생략)

### 마. 두 교사의 체험의 의미

지금까지 필자는 교실 수업 공개와 참관을 통한 두 교사의 변화 과정을 이야기의 형식으로 기술하였다. 필자는 교실 공개와 참관을 통한 두 교사의 체험을 되돌아보며 '열정'과 '몰입'이라는 두 단어를 떠올린다. 박혜정 선생님의 수업을 이해하는 핵심은 학생을 변화시키려는 열정에 있다. 또 연구자는 수업 비평적인 관점에서 거리를 두고 박혜정 선생님의 수업을 지켜보다가 그 '열정'에 감염되어 점차 박혜정 선생님의 수업에 '몰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몰입을 통해 연구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업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였을 뿐 아니라 수업 참관 경험이 자신의 수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필자는 이러한 열정과 몰입이 국어 교사의 변화와 성장에서, 그리고 현장에서의 실행 연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따져볼 필요성을 느낀다.

교사는 아이들의 와글대는 소리와 선생님의 고향 소리가 교차하며 복도로부터 점심 배식차의 음식 냄새가 흘러드는 교실에서 가장 많은 변화와 성장을 체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육 연구자와 현장 교사들이 그러한 사실을 애써 무시해왔다. 학교 현장에서 교실은 타인의 시선이 침해하기 어려운 신성불가침의 공간으로 여겨져 왔으며<sup>15)</sup>, 그로 인해 교실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며 어떤 것을 느끼는지 보고된 바가 거의 없다. 교실 공간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 결과는 대체로 통계 수치로서 나타날 뿐이었다.

교실이 학생과 교사가 교육적인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학교의 핵심적인 공간이고, 그러한 변화와 성장이 '열정'과 '몰입' 같은 마음의 상태를 거쳐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질적 연구 방법을 교실 연구에 적용하여 그러한 현상을 과학적으로 포착해 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만 막연한 수치로만 인식되는 교실에서의 삶이 뚜렷한 색채를 지닌 선명한 모습으로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실에서의 체험을 질적으로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이 연구에서처럼 연구자 스스로가 몰입을 체험하는 경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연구 주체의 체험과 그 체험의 주관적 의미를 증시하는 질적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몰입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젖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의 몰입 체험 자체는 연구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 질적 연구자가 경계해야 할 것은 몰입 자체가 아니라 몰입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여 몰입의 의미를 반성하지 못하는 것이다<sup>16)</sup>.

15) 연구자는 앞서 언급한 M 교사와의 면담에서 그러한 관념의 한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16) 그런데 몰입 상태에서 빠져나와 몰입의 의미를 반성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과 간 주관적인 성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두 교사의 체험의 의미를 반성해보

그러면 두 국어 교사가 보여주고 체험한 '열정'과 '몰입'의 교육적 의미는 무엇일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박혜정 선생님의 교육적 열정은 개혁에 대한 열망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장에서 체험한 가르치는 기쁨에 의해 증폭되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개혁에 대한 열망과 가르치는 기쁨에서 비롯된 교육적 열정이 박혜정 선생님의 국어교육 실천을 추동하는 힘이라는 것이다. '박혜정 선생님의 국어 수업에서 교육적 열정을 빼면 과연 남는 것은 무엇일까?'를 질문해 보면 이 말의 의미가 실감된다.

필자는 박혜정 선생님의 열정은 국어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비롯되었는가, 아니면 국어교육의 테두리 바깥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 본다. 이 질문은 '국어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관련이 있다. 즉 박혜정 선생님의 교육적 열정이 어떤 방향성을 지닌 것이라 할 때 그 방향성이 국어교육의 내적 목적을 향한 것인가, 아니면 국어교육 바깥의 목적을 향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지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어교육계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이라는 국어교육의 목적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박혜정 선생님의 교육적 열정은 그러한 목적을 훨씬 넘어서는, 교육 일반의 목적이라 할 만한 것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혜정 선생님은 사고력 교육과 인성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다른 것에 예측됨이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학습하는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박혜정 선생님은 국어교육을 매개로 하여 교육 일반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되돌아보면서 필자는 박혜정 선생님의 국어 수업을 수

---

는 논문의 이 부분을 체험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인 2004년 4월에 썼다. 그 사이 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의 발표와 발표 원고의 투고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이들로부터 유익한 논평을 들었다.

업답게 만들고 있는 교육적 열정이 '국어교육만의' 성격과 목적을 논하는 기존의 분과적 접근법의 그물 안으로는 제대로 포섭되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박혜정 선생님의 경우 교육적 열정의 본질은 인간을 변화시키려는 열망이지 의사소통을 잘 하게 하려는 열망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뒤집어 진술하면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이라는 국어교육의 분과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는 박혜정 선생님의 경우와 같은 열정을 지닌 국어교육 실천을 담보해 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필자가 이번 체험을 되돌아보면서 특별히 주목하는 점은 교육적 열정의 전염성이다. 수업 참관이 시작될 무렵 연구자는 박혜정 선생님의 수업을 한국의 교육 현실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 맥락에 기초하여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구자는 박혜정 선생님의 수업에 몰입하게 된다. 그러한 몰입의 밑바탕에는 박혜정 선생님의 학생관에 대한 연구자의 공감이 있었지만 연구자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박혜정 선생님의 수업에 몰입하게 한 힘은 바로 박혜정 선생님의 수업에 대한 열정에 있었다. 이러한 몰입을 통해 연구자는 수업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차원, 즉 인격적 교육 철학<sup>17)</sup> 차원이라고 할 만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번 교실 수업 공개와 참관을 통한 체험에서 연구자는 연구 대상에 대하여 비판적 거리 두기에서 몰입으로, 다시 (필자의 입장에서) 반성적 성찰로라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자신이 참관 초기에 고수하려고 했던 거시적이고 비판적인 관점과 몰입을

17) 인격적 교육 철학이라는 용어는 필자가 폴라니(Polanyi)의 인격적 지식(personal knowledge)의 개념으로부터 유추해 낸 용어이다. 이 개념을 통해 필자는 교사의 교육 철학이 교사의 실천적 삶을 통해 개인적으로 형성해 가야 할 신념이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인격적 교육 철학은 현장에서 교육을 실천하는 사람이 자신의 전 인격을 기울여 형성해 가야 할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입장과 태도이다.

통해 경험한 박혜정 선생님의 인격적 교육 철학의 관점이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두 관점은 서로 차원이 다른 것이다. 즉, 전자는 교실 수업을 책임지는 교사의 실존적인 관점이고 후자는 교육 현상을 투명하게 조명하려는 과학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인 것이다. 교실 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다른 차원의 관점을 동시에 갖출 필요가 있다.

## 4. 방법론적 반성

### 가. 현장 텍스트

연구자는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현장 텍스트를 축적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산출된 현장 텍스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수업 관찰지 10\_21, 10\_22, 10\_27, 10\_28, 10\_29, 10\_30, 10\_31,  
11\_03, 11\_06

수업 전사 10\_27, 10\_28, 10\_30, 11\_03, 11\_06

연극 수업 참관 소감

박혜정 선생님 면담 기록

학생 면담 기록

수업 분위기 관찰 분석지

연구일지

수업 공개 교사 소감문

이메일

### 나. 연구 윤리

연구자는 연구가 시작될 무렵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지 참여자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연구 주제 자체가 연구 과정에서 분명해지는 질적 연구의 특성에 따라 연구 주제에 대한 생각이 구체화되었을 때 그 주제 의식을 참여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또한 연구의 성격과 활용 방법에 대하여 참여자가 의문을 제기하였을 때 진지한 태도로 대화를 나누었다.

연구자는 현장 텍스트를 작성할 때 즉각 그 자료를 참여자에게 피드백하여 주었으며 현장 텍스트에 담겨 있는 정보를 참여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노출시키지 않을 것임을 구두로 약속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여자는 자료의 관리에 관해서는 연구자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연구 텍스트를 작성할 때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참여자의 개인적인 일화를 연구 텍스트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상의를 하였으며 참여자로부터 노출을 해도 괜찮다는 답변을 들었다.

## 다. 연구의 타당도

여기에서는 레이더<sup>18)</sup>가 제시한 질적 연구의 네 가지 방법적 절차에 따라 연구의 타당도를 반성한다.

### (1) 삼각측정법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는 관찰, 면담, 그리고 성찰 기록이라는 세 가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세 가지 연구 방법은 자료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상호 참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연구 텍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맥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18) Lather, P.(1986), 여기서는 김영천(1997: 45-49)의 설명을 참고하였다.

## (2) 반성적 주관성

연구자는 연구가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연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연구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 주제도 점점 구체화되었다. 연구자는 그러한 변화의 과정을 연구 일지를 통하여 성실하게 기술하였으며 연구 텍스트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그러한 변화 과정을 생생하게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 (3) 참여자의 연구 결과 평가 작업

연구 텍스트를 쓰면서 필자는 11월 17일과 11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협력 교사에게 내용 검토를 부탁했고 협력 교사는 내용이 부족하거나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었다. 필자는 협력 교사가 지적한 내용을 연구 텍스트에 반영하기도 하고 본문에 직접 반영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을 각주로 처리했다.

## (4) 카타르시스 타당도

연구 참여자는 이 연구를 통하여 자신의 수업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으며 연구와 실천의 관계, 베테랑 교사와 신참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음을 고백하였다.

## 라. 방법 적용의 한계

질적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 텍스트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필자는 상당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다. 피상적으로 보면 질적 연구의 경험이 없었다는 데 원인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질적 연구자가 고수해야 할 관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깊은 통찰이 없었던 데 그 원인이 있었다. 그 결과 이 연구의 산물인 연구 텍스트는 논문이 아니라 '잡문'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하고, 현상 기술은

있으되 의미는 없는 것으로 비치기도 했다. 다행히도 필자는 이 논문을 검토한 분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귀중한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필자가 중요한 연구 도구이므로, 필자에 대한 기술이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더 명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박혜정 교사에 대해 과도하게 몰입하여 거리 조절에 실패했다.', "그래서?"에 대한 답이 없다.', '필자, 연구자, 나, 참관 교사 등의 용어에 따라 '목소리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조언에 대하여 답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필자는 질적 연구의 타당도는 타당도의 외형적 조건을 갖췄다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며 질적 연구자가 갖추고 고수해야 할 자질과 관점을 연구자 스스로 체득할 때 성취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

\* 본 논문은 2004. 3. 1. 투고되었으며, 2004. 3. 14. 심사가 시작되어, 2004. 3. 26.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영천(1997), 『내 학교 이야기 - 한국 초등학교의 교실 생활과 수업』, 문음사.
- 서근원(2003), “학교 수업의 구조와 교사의 딜레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 개발센터.
- 서근원(2003), 『수업을 왜 하지?』, 우리교육.
- 심영택·원진숙·임칠성·김은성(2002), 『강의 개혁을 위한 교실 평가 기법 50가지』, 한국문화사.
- 이혁규·심영택·이경화(2003), “초등 예비 교사의 실습 체험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6(1), 한국교육인류학회.
- 주삼환(1998), 『수업 관찰과 분석』, 원미사.
- 한승희(2000), “교육학의 새로운 지표로서 내러티브”, 『교육학연구』 38(4), 한국교육학회.
- Clandinin, D. J. & F. Connelly(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Freire, P., 교육문화연구회 옮김(2000), 『플레이리의 교사론 - 거거이 가르치려는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아침이슬.
- Jackson, P. W. (1990), *Life in Classrooms*, Teachers College Press.

<초록>

## 교실 수업 공개와 참관을 통한 두 국어 교사의 변화와 성장의 체험

엄훈

이 연구는 두 국어 교사가 중학교 교실 수업을 공개하고 참관하는 교실 평가의 과정을 통하여 겪는 변화와 성장의 체험을 내러티브의 방식으로 짜 나간 것이다. 이 논문은 10월 21일부터 11월 6일까지 3주간에 걸친 수업 공개와 참관을 통하여 두 교사가 본 것은 무엇이며 느낀 것은 무엇인지 충실하게 보여준다. 특히 수업을 참관하는 교사 연구자가 연구가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연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연구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연구 주체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 논문은 교실 수업 공개와 참관을 통한 교사들의 체험을 이야기 속에 담아낼 뿐 아니라 그 이야기의 맥락을 제대로 기술하기 위하여 '이야기의 바깥쪽'과 '이야기의 안쪽'이라는 상호보완적인 이야기 구성 방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질적 연구에 결여되기 쉬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레이다(Lather, 1986)가 제시한 질적 연구의 네 가지 방법적 절차를 따랐다.

교실을 공개한 박혜정 선생님의 수업은 엄격한 교실 통제, 활발한 언어적 상호작용, 빠른 템포, 적재적소에서 학습의 포인트를 포착하여 다루는 민첩함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박혜정 선생님은 사고력 신장이 국어교육의 핵심이라는 국어교육관에 따라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하는데 이를 위해 국어 교과서의 단원을 중심으로 연극 수업 같은 프로그램화된 활동을 통합한다.

연구자는 박혜정 선생님의 수업을 참관하면서 수업을 보는 눈에 변화를 겪게 되었다. 수업 참관 초기, 연구자는 수업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판적

으로 분석하는 과학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참관이 계속되면서 박혜정 선생님의 인격적 교육 철학의 관점으로 동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박혜정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와 학생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구자와 박혜정 선생님은 수업을 공개하고 참관하는 과정에서 상호침투를 하는 변화를 겪었다. 연구자는 수업 참관이 계속되면서 박혜정 선생님의 수업에 자신의 수업을 비추어보게 되고 박혜정 선생님의 수업 행동으로부터 지속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더 나아가 교사-연구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교사-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혜정 선생님은 참관자의 피드백을 받아 자신의 수업에 더욱 확신을 얻게 되었으며 베테랑 교사와 신참 교사 간의 수업 공개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아울러 현장 연구의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핵심어】** 교실 평가, 수업 참관, 질적 연구, 내러티브 방법

<Abstract>

Two Korean Language Teachers' Experience of  
Professional Development Through Classroom Opening  
and Classroom Observation

Um, Hoon

Two Korean language teachers have experienced professional change and development through classroom opening and classroom observation from Oct. 21 to Nov. 6, 2003. Park Hejeong, the classroom opening teacher, showed her Korean language classes to the researcher, and the researcher observed them. They use narrative inquiry method to show what they have seen and what they have felt. The research text describes the realizing of research theme in the course of research project and observer's change of viewpoint during the research. The research text also uses reciprocal story structure with two story lines: inner story and outer story. This story structure helps to describe the context of the two teachers' experience vividly.

The class of Park Hejeong can be characterized by strict classroom control, active verbal interaction, quick tempo and promptitude in capturing learning point. She replans her own curriculum according to her educational belief. As a result, she reconstructs textbooks and integrates programmed activity like play-activity to them.

The researcher experienced change in his eye of observing classroom.

At the beginning he maintained to have critical viewpoint to analyse factors of class but in the course of classroom observing he has been assimilated to the classroom opening teacher's personal education philosophy.

The two teachers experienced reciprocal change in this research. The researcher reflected his class teaching to the classroom opening teacher's class and has been influenced continuously by the classroom opening teacher's teaching activity. Furthermore, he realized his identity as teacher-researcher. The classroom opening teacher also came to have confidence in her class behaviour and realized the need of classroom opening between novice teacher and veteran teacher.

**【key words】** classroom assessment, classroom observation, qualitative research, narrative inquiry